



14면

‘폭력 없는 스포츠 환경 만들어요’
도체육회, 인권·성폭력 예방교육

2020년 7월 13일 월요일 (음 5월 23일)

제257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빌 6번지

“경각심 · 사명감 갖고 방역 총력”

송하진 지사, 시장·군수에 코로나 확산 방지 주문
공무원 조직 철저한 근무기강 확립·책임의식 당부

송하진 도지사가 방역 최일선 보건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도내 시장·군수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각심과 사명감을 갖고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지난 10일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에 이어 도내 시장·군수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 영상회의를 갖고 철저한 방역 추진을 당부했다.

송하진 지사는 “코로나 19가 대구, 경북과 수도권을 넘어 최근에는 대전, 광주권 등 우리 도와 인접한 지역에서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도 방역대응 자체도 바뀌어야 한다”며 “대전, 광주 지역과 예식장, 장례식장 등 수도권 거주자 왕래가 잦은 곳에 대해 방문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방문 시 접촉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협

조를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도민 모두 알고 있지만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인식과 실천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며 3가지 기본수칙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과 손접촉 최소화,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가격리자, 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등 개인 이탈사례와 별책조항을 도민에게 적극 홍보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방역수칙 미준수 신고 건은 즉각적인 현장 지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송 지사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재개 방안과 함께 전북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방역관리자 지정



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송 지사는 오는 20일부터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이 여름철 무더위 쉼터로 운영재개할 예정이므로 철저한 방역 세부수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0개 업종 집단감염 위험시

설 사업주가 책임의식을 갖고 방역수칙을 준수 할 수 있게 방역관리자를 지정하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정마와 무더위, 코로나19로 도민들도 지쳐있는 만큼 집단감염 위험시설 점검 시 친절함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쳐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도 방역에 지장이 없도록 7~9월에 분산해서 휴가를 사용할 것도 당부했다.

송하진 지사는 최근 전남도청 시설 폐쇄 사례를 들며 “방역 컨트롤 타워인 공무원 조직이 감염돼 방역의 근간이 흔들리면 안된다”며 “철저한 근무기강 확립과 함께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이어 “도민의 건강과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앞장서 달라”며 “시군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의 끈을 팽팽히 유지하면서 철저한 방역 추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호성 기자

“수능 영어 난이도 낮춰야”

전북교육청, 6월 모평 코로나발 학력격차 확인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6월 모의평가 결과로 보아 코로나19로 학습공백을 겪고 있는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수능 절대평가 영역(영어/한국사)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욱 설득력이 있음을 밝혔다.

지난 6월 18일에 실시한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결과 절대평가인 영어영역에서 예년의 결과와 비교할 때 상위권과 중위권의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모의평가 영어영역에서 1등급(90점) 학생비율은 8.7%로 지난해 6월 모의평가 결과보다 0.9% 소폭 상승한 반면, 영어 2~4등급 비율은 모두 감소했다. 특히 2등급과 3등급은 각각 0.9%, 0.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6월 모의평가가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비교적 쉽게 느껴진 반면,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상위권 학생들과 지방의 학습 소외지역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어려워 등급 비율이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6월 모의고사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N수생들이 수능에 참여할 경우 올해 수능에서의 재학생과 졸업생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된다. 해마다 수능시험에는 6월 모의고사 평가에 참여한 수험생의 약 3배 정도의 인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고3 재학생의 불리함은 분명해진 상황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6월 모의평가가 예년과 비교했을 때, 재학생과 졸업생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올해 수능은 예년의 출제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입시 전문가들은 재학생과 졸업생의 점수 격차 등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고, 6월 모의고사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졸업생의 수를 고려하지 않아 나타난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고3 수험생들에게 절대평가인 영어영역의 난이도가 중요한 이유는 지역의 중위권 학생들이 선호하는 지역거점국립대의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가 합격의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입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3 수험생들에게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조절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별로 사교육 영향이 적은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결과는 대도시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절대평가 영역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해 줄 것과, 위계가 있는 과목(수학, 과학Ⅱ)의 고난도 문항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의견을 평가원이 어느 정도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 교룡산 국민관광지 ‘엔택트 관광지 100선’

남원의 교룡산국민관광지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엔택트(비대면) 관광지 100곳’에 선정됐다.

한국관광개발공사는 최근 코로나19를 피해 상대적으로 여유롭고 안전하게 국내여행을 할 수 있게 돕겠다는 취지에서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 ▲개별여행·가족단위 테마관광지 ▲야외관광지 3밀(밀폐, 밀접, 밀집)을 피해 한적하게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관광지 ▲자체 입장객수 제한을 통해 거리두기 여행을 실천하는 관광지 중 지역관광공사의 추천을 받아 ‘엔택트 관광지 100선’을 선정했다.

남원시에 따르면, ‘엔택트 관광지’는 코로나19 사태로 다른 여행지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관광지를 말하며, 교룡산국민관광지는 1987년 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교룡산 일대 192만㎡의 부지에 조성한 국민관광지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가 마련돼 있다. 고 박 시장의 장례는 서울특별시장으로 5일장으로 치뤄지며 발인은 13일이다.

〈사진=서울시 제공, 관련기사 3면〉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43개소, 13일부터 정상 운영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43개소가 이번 주 정상 운영된다. 시는 그동안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내렸던 휴원 명령을 해제하고 13일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아동센터의 임시휴원에도 불구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긴급돌봄 체계를 구축·운영해왔다.

특히 시는 휴원기간 동안 아동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돌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상운영 후에도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및 일일 점검표 작성, 1일 2회 이상 발열·호흡기 증상 체크,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토록 안내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10년의 약속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은 무엇일까?’
전북교육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해온 질문입니다.

오랜 시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교육가족들과 함께 찾아가는 과정에서
교실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었습니다. 전북교육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고
아이들은 배우는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또 그 배움이 그대로 아이들의 삶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10년 전, 전북교육의 약속
변함없이 지켜가겠습니다.

